1면에서 계속 ➡

학교는 앞서 제시한 사례를 토대로 지난 9월 18일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서울캠 ▲청운관 ▲본관(대학원) ▲평화의 전당 등 3개 건물의 50m 이내 구역에서 ▲화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고성·부부젤라(응원나팔)·장송곡 등 소음을 이용한 시위 ▲건물 출입 및 이용 방해·점거 ▲시설물 훼손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을 금지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고성·부부젤라(응원나팔)·장송곡 등 소음을 이용한 시위에 대한 요구를 ▲소음 측정치가 65dB를 초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하는 방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는 '경희대학교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라며 지난 14일 서울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철회, 총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노조, 정당한 쟁의행위 위축 우려
근태 협조 · 대화 조건 놓고 이견

반면 노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 9월 21일 예정됐던 노동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교내 행사인 Peace BAR Festival(PBF)과 일정이 겹치자 자진 연기했음에도 학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휘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 산학협력단지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부터 성실하게 대화의 문을 두드렸다"며 "쟁의권을 확보한 뒤에도 결의대회를 스스로 미뤘지만 돌아온 것은 5천만 원이 적힌 방해 금지 가처분이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학교와 노조 간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경희학원지부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학교 측은 노조에게 산학협력단 임금교섭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총장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는 임금교섭 문제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해당 사안을 제외한 총장 면담은 무의미하단 입장을 전했다"며 "소송취하 뒤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 측의 근태 협조 거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노조는 매 학기 초 임원·간부 회의 일정을 인사처와 산학협력단, 사이버대 측에 전달해 회의 참석을 위한 근태 협조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인사처가 지부장 선거 관련 회의에 대해 근태 협조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이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총장 면담을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하면서도 기존에 인정해 온 노조 회의에 대한 근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를 인사처에 확인해 본 결과, 오 처장은 "대학은 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횟수를 사전 협의하고, 이를 양측이 준수하며 근태협조한다"며 "이번 회의의 근태 협조 요청의 경우, 노조가 근태협조 허용한도를 소진하여 이에 대해 근태 협조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내 구성원 시각 엇갈려
쟁의행위 제한, 법적 기준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지난 2월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서 자격 시험을 준비했다는 재학생 A씨는 "쟁의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고 존중하지만, 며칠간 이어진 소음으로 집중력을 잃곤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학생 B씨는 "대학본부의 법적 대응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노동권 침해가 우려돼 노조 측 주장에 공감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도 있었다. 성경헌(경제학 2020) 씨는 대자보를 통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법적 절차로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을 용인하는 세상이 더 나은 세계는 아닐 것"이라며 학교의 가처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동조합의 권리가 충돌할 때 집회·시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진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법학) 교수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형사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범위 안의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업무 방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가 구체적으로 임박했고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HP 보안 취약점 확산…우리학교 웹사이트 보안 대응은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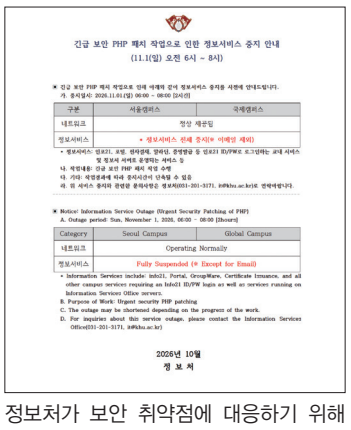
최근 PHP 보안 취약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학교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월 21일,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원격으로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PHP2Shell)이 발견됐다. 웹 기술 조사기관 W3Techs에 따르면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0%를 차지한다. 발견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로그인 절차 없이도 원격으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해 서버 권한을 빼앗고, 데이터 유출이나 웹사이트 변조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웹사이트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국내외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서버 및 웹사이트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도 기업과 공공기관에 PHP 관련 긴급 권고사항을 공지했다.

우리학교 역시 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와 다양한 학술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보처는 지난 1일 PHP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교내 웹사이트 내 PHP 관련 해킹 의심 정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성원 정보처장은 "지난 10월 22일경 해당 사안을 인지했고, 즉시 정보처와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연락하여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PHP사태와 더불어 최근 생성형 AI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버 공격 시도가 급증한 상태"라며 "외부 공격에 철저하게 대응·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HP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버전별로 적절한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8.1 이하 구버전은 공식 패치 지원 여부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긴급 보안 PHP 패치 작업으로 인한 정보서비스 중지 안내
(11.1(일) 오전 6시 ~ 8시)

★ 긴급 보안 PHP 패치 작업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정보서비스 중지를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가. 중지일시: 2026.11.01(일) 00:00 ~ 08:00 [8시간]

구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네트워크	정상 제공됨	
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전체 중지(※ 이메일 제외)	

• 정보서비스: 인포21, 포털, 웹메일, 캠퍼스 플랫폼 등 인포21 ID/PW로 로그인하는 교내 서비스 및 정보처 서버로 운영되는 서비스 등
나. 작업내용: 긴급 보안 PHP 패치 작업 수행.
다. 기타: 작업진행에 따라 중지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라. 위 서비스 중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보처(031-201-3171, it@khu.ac.kr)로 연락바랍니다.

★ Notice! Information Service Outage (Urgent Security Patching of PHP)
A. Outage period: Sun, November 1, 2026, 00:00 ~ 08:00 [Hours]

Category	Seoul Campus	Global Campus
네트워크	Operating Normally	
정보서비스	Fully Suspended (※ Except for Email)	

• Information Services include: Info21, Portal, GroupWare, Certificate Issuance, and all other campus services requiring an Info21 ID/PW login as well as services running on Information Services Office servers.
B. Purpose of Work: Urgent security PHP patching
C. The outage may be shortened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work.
D. For inquiries about this service outage, please contact the Information Services Office(031-201-3171, it@khu.ac.kr)

2026년 10월
정 보 처

정보처가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PHP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

교내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지난 10월 23일 패치가 제공된 최신 환경의 PHP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 패치가 제공되지 않는 구버전 환경 사이트에는 취약점 공격의 핵심 통로인 세션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고 파일 업로드 용량을 제한하는 차원의 서버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정보처의 총괄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내 PHP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해킹이나 웹쉘(Web shell) 설치, 데이터 변조 등의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학교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최신 네트워크 환경(VPC) 및 PHP 최신 버전(PHP 8.5.12)으로의 전면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전환에 따른 호환성 검증에는 약 1,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해당 예산을 2027학년도 본예산으로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내년 중 JAVA 기반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2차 인증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별도의 보안 조치가 적용된 클라우드 저장소에 데이터베이스 및 첨부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유사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 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라 침해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책도 수립했다.

한편, 외부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세화관 ▲제2기숙사 등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확인한 피해 상황은 없다. 세화관은 "외부업체 측에서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서버 작업 기록 및 시스템 기록(로그) 점검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기숙사는 "정기 보안 및 서버 점검을 분기당 1회씩 시행한다"며 "유지·보수 업체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